

국토안전관리원, 소규모 건설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무상 지원

12월 10일 출범 1주년을 맞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이 소규모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 장비 무상 지원 사업을 추진해 눈길을 끈다.

안전 사각지대에 처할 수 있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민간 건설 공사장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관리원은 이를 올해 시범사업으로 진행해 소규모 현장의 안전을 돕고 있다.

소규모 건설공사는 인력과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자발적 노력만으로는 안전 수준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다.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 중 공사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86%나 된다. 공사 기간이 짧다 보니 감독기관의 점검 등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데도 한계가 따른다.

이처럼 관리원은 어려운 현실에 놓인 소규모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고, 건설 사고와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지원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안전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현장에 첨단 장비 시설 등을 지



원하는 것으로, 올해는 영남권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무상 지원 품목은 지능형(AI) CCTV를 비롯해 붕괴·변위 위험경보

1 스마트 건설 시설 안전 대전 개막식에서 전시 내용을 설명하는 박영수(중간) 원장 2 건설 현장을 점검 중인 박영수 원장(오른쪽)



3 소규모 건설 현장 안전 점검 4 지능형 CCTV로 현장 안전 상태를 확인 중인 국토안전관리원 담당자

장비, 충돌·협착 방지 장비, 스마트 안전 턱 끈 및 안전 고리 등이다. 이 장비는 위험요인을 감지하면 모바일앱과 종합상황판을 통해 현장 관리자와 관리원의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줘 사고를 예방하도록 설계돼 있다.

관리원은 지난 7월 경남도와 대한건설협회가 추천한 70여 개 건설 업체 관계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열었다. 이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정위원회가 심사해 12개 건설 현장을 선정했다.

관리원은 이 가운데 7개 현장에 스마트 안전 장비를 지원하고 10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장비를 지원한 7개 현장은 거창군 북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공사, 창원시 양덕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공

사, 창원시 동원 MD스타 신축 공사, 김해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 등이다. 부산시 장전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진주시 대죽지구 하천 재해 예방 공사, 통영시 통영기지본부 비상 출동 대기 시설 건축 공사 등도 지원했다.

관리원은 연말까지 5개 현장에 장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설문조사를 벌여 사업 효과와 보완사항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건설 현장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내년에는 안전 장비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도 마련 중이다.

관리원은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발주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주관하는 '스마트건설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해 '스마트 안전통합관제센터 구축'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 스마트 안전 통합관제시스템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엣지 컴퓨팅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해 건설 현장의 사고 위험을 인지·예측·예방하는 기술을 말한다.

관리원은 이 과업과 연계해 영남권에 적용한 시스템 운영과 장비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건설 현장의 안전 관련 데이터를 수집 분석한 결과를 발주기관의 안전 관리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건설공사 안전관리종합정보망(CSD)과 연계해 안전관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DB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박영수 원장은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및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사업은 소규모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건설업 재해율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 전 생애주기 안전관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주요 업무

- ◆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설계안전성 검토
- ◆ 국가 주요시설물 정밀안전진단
- ◆ 지하안전체계 구축 및 운영
- ◆ 기반시설 안전·성능 관리
- ◆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기술지원
- ◆ 건축분쟁 및 공동주택 하자분쟁 조정